

나주시, 모든 임신부 가정에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거주기간·지원 조건 없애고

1회 3시간 5회까지 지원

난임 시술비 150만원도 보전

나주시가 4월부터 출산을 앞둔 모든 임신부 가정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신부 가사 돌봄은 임신부 가정으로 가사 인력을 파견해 청소·정리수납·설거지·빨래 등 집안일을 돕는 사업으로 민선8기 나주시의 신규 시책이다. 출산 이후 출생아에게 치중됐던 지원 정책을 임신부로 확대해 건강한 임신 생활을 돕는다. 특히 기존 '6개월 이상 거주', '고위험군·돌짜아 이상·다태아·장애인' 임신부 가정에 한정했던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조건을 내달부터 전면 폐지하

고 전체 임신부 가정으로 확대했다. 또 선착순 300명이었던 사업량 제한도 없앴다. 지원조건 폐지는 보편적 출생지원 서비스 강화 조치로 첫째아 출산을 앞둔 임신부 가정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 간 나주시 평균 출생아 기준 첫째아는 전체 출생아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사 돌봄은 '돌짜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원조건 폐지로 4월 1일부터는 첫째, 둘째아 구분 없이 모든 임신부 가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사 돌봄은 1회 3시간·총 5회에 걸쳐 가사 전문 인력을 파견해 청소·빨래·정리수납 등 각종 집안일을 돕는다. 나주시는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했으며 사업비

8500만원을 추가 반영·확보했다. 거동이 불편한 임신부를 배려해 보건소 방문이 아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시스템 '나주헬퍼' 웹(http://www.naju.go.kr/naju_helper/)을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발했다. 나주시보건소는 임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150만원, 검진비 최대 30만원을 비롯해, 가임기 여성 무료 산전 검사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조건 폐지를 통해 모든 임신부 가정이 가사 부담을 줄여 건강한 임신 생활을 영위하길 기대한다"며 "임신 전부터 임신 생활, 출산 이후까지 시기에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애플망고 수확시기 확 당졌다

새 접목기술 초축성재배 성공
6월 수확보다 3배 높은 가격



강진에서 육성하고 있는 아열대과수 애플망고가 다른 지역보다 획기적으로 수확기를 앞당기는 '초축성재배'에 성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진읍에서 4000㎡의 애플망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명환 대표는 지난 18일 공판장에서 처음 망고를 출하하면서 3kg 한 박스당 30만원이 넘는 단가를 받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번 수확은 올해 대한민국 육지부 최초 수확으로 6월 수확 평균 가격 10만 원(3kg)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가격을 받은 셈이다. 특히 맛과 품질 면에서 다른 지역 망고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강진 애플망고의 경우 20-22브릭스(Brix·과일의당도 단위)까지 나오는 걸로 확인됐다. 최 대표는 "지금은 국내산 애플망고가 거의 없는 시기여서 시장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것 같

다"면서 "대부분의 망고는 6-7월 사이에 출하되는데, 주산지인 제주도부터 공급량이 몰려들어 해당 기간에는 고가 판매가 어렵고, 여름철 고온으로 작업이 힘든 점도 도전의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애플망고의 초축성재배는 냉난방 히트펌프를 활용, 여름 저온처리와 겨울 가운데처리를 병행해 꽃을 빨리 피게 만드는 기술을 접목했다"면서 "앞으로도 아열대과수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군이 지난 28일 정남진 장흥농협 유치지점에서 지역 특산물인 원목 건표고버섯을 올해 처음 수매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원목 건표고버섯 수매 시작...내달 4일 공판

수출액 100만달러 기여 품목
군, 장비지원 등 품질 제고 정책

장흥군이 특산물 원목 건표고버섯 수매를 시작했다. 건표고버섯 전국 최대산지인 장흥군은 정남진 장흥농협 유치지점에서 장흥군과 전남도내 입자로부터 수매한 건표고를 4월4일 입찰을 통해 공판한다.

장흥군의 건표고버섯은 지난해 미국과 홍콩에 동시에 수출되는 등 장흥군이 6년 연속 해외 수출액 1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효자품목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 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건표고버섯의 효능을 꾸준히 알리면서 해외 판로를 넓혀왔다. 장흥군은 원목 건표고버섯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별첨 중군접종 적기를 맞아 군 관계자와 표고연합회가 4월 중순까지 집중을 마치도록 입가에 당

부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와 생산단가 상승에도 대응해 표고종군, 표고자목, 지역맞춤형 재배사, 기계장비를 집중 지원하며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표고자목과 임산물 재배를 조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산림소득 지원절차를 개선해 임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향후 장흥표고의 명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과태료 최고 2000만원

함평군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4월3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 함평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하게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처분도 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함평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국산김치 사용지정 업소 25만원 지원

김치협회 인증 229개 업소

화순군이 관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업소에 식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수입산 김치보다 3배가량 비싼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국산 김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김치협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업소로 인증을 받은 229개 업소이다. 1곳당 최대 25만원까지 연중 1회 지원하며, 국

산 김치 제조에 필요한 고춧가루, 양파, 소금, 마늘, 깃털 또는 김치 완제품을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소포량 납도장터를 통해 구매할 경우에만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인증 업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4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미인증 업소가 지원받고자 하면 사전에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인증받아야 한다. 인증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센터에서 제공한 지정신청서와 국산 김치 재료구입 내역서 등을 손수 작성해 제출하거나, 김치협회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장성군, 26억원 투입 월산마을 노후주택·도로 정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정비사업이 추진될 장성 월산마을.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 장성을 월산마을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는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취약지역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장성을 월산마을은 밀집된 노후주택과 좁은 골목길을 지닌 오래된 마을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해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70%를 지원받게 된 장성군은 2026년까지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마을안길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지역민의 생활 안전도를 높이는 인프라 구축과 주민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공모사업과 더불어 월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병행해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월산마을이 다시 번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지역활동가 지원

4월 활동가 교육·5월 마을컨설팅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역 공익활동가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컨설팅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센터가 배출한 나주시공익활동가는 1기부터 5기까지 총 52명으로 교육·문화·환경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나주시 지역 공익활동을 위해 활동 중이다. 센터는 지난 21일 정성진 문화분과위원장 등 문화분과, 지난 28일 김현숙 교육분과위원장 등

교육분과 회의 및 마을의제 발굴, 마을문제 해결, 분과 미래전략 등 3차 회의(사진)를 진행했다. 센터는 4월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5월 '찾아가는 마을컨설팅' 등 매월 주제를 선정해 각 분과별로 나주시 지역 공익활동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나주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도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아카데미 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교육은 오는 4월6일~6월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진행할 예정이다. 최석순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팀장은 "그동안 센터가 배출한 공익활동가들이 52명으로 이분



들이 나주시 지역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발굴하고 해결, 추진해 내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센터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더불어 다 함께 살기 좋은 행복 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

화순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개장

화순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29일 개장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화순군과 능주농협 등은 이날 능주농협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개장식을 열고 현판 제막식 등을 진행했다. 능주농협은 지난 2020년부터 3개 매장에 '미니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억원을 확보했다. 능주농협은 직매장 건물을 신축하고 기자재 등을 구매했다. 새로 개장한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농가 교육장과 체험장, 유리온실, 공유 부엌, 차 전 문점 등이 들어섰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에게 좋은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화순군은 올해 군비를 들여 로컬푸드 직매장의 포장재 지원과 소농 비닐하우스 지원, 농가 교육, 홍보 등을 벌일 방침이다.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총 500건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중소·고령·여성 농업인이 생산하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29일 화순군과 능주농협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하고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열었다. (화순군 제공)